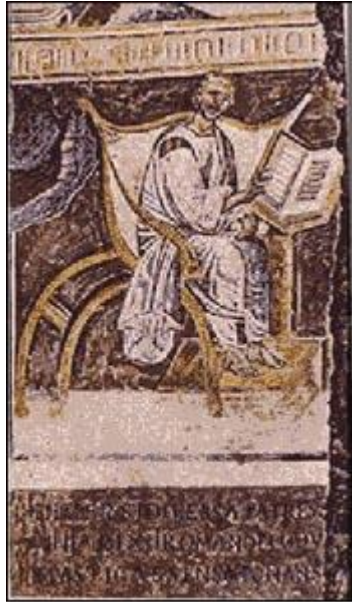


제 6 강 중세 기독교 철학 II: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아우구스티누스의 원죄론과 예정설◆



아우구스티누스

※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354-430) : 기독교 철학의 선구자. 아프리카의 소도시 타가스테에서 평범한 지방 공무원의 아들로 출생. 수사학 학자로 활동하다가 북아프리카의 중심지인 카르타고에서 10 년을 지내고 로마로 이주, 서로마 제국의 수도인 밀라노에서 32 세의 나이로 기독교로 개종했다. 암브로시우스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북아프리카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고, 히포에서

34 년간 주교생활을 하며 113 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작을 남겼다.

△ 등장배경

- 로마 제국의 영토 안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금지되어 있었다.
- 선과 악이 팽팽히 맞대결을 펼치는 마니교에 빠져있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악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었다. (암브로시우스를 통해 신플라톤주의에 관한 저서들을 접하게 됨)

△ 주요개념

- 기본 개념 : "악은 선의 결핍 상태이지 그 자체로 적극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 ⇒ 서양철학에서 처음으로 자유의지의 개념을 논함 : 악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것으로 인간의 왜곡된 의지에 의해 그것이 표출되는 것이다.
- 원죄론 : 인간의 자유의지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처음 발동한 것. 즉, 인간의 자유의지가 왜곡되었으므로 원죄를 짓게 되었다.
- 예정설(신의 은총론) : 오로지 전지전능한 신의 의지에 따른

은총에 의해서만 악으로부터 구원될 수 있으며 그 은총의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때, **신의 은총을 받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미리 예정되어 있다.** (하나님 즉 플라톤의 선의 이데아, 플로티누스의 일자)

△ 펠라기우스 ¹⁾와의 차이점

- 자유의지에 대한 견해 :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도덕적 업적의 힘을 전면 부정, 신의 은총만을 구원의 도구로 간주한 반면,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도덕적 책임 의식에 대한 신의 보상을 주장함. (아우구스티누스는 **신본주의**, 펠라기우스는 **인본주의**)

1) Pelagius (354-418) 영국의 수도자이자, 철학자, 신학자. 브리타니아 출생이며 로마에서 엄격한 수도생활에 솔선하며 신앙생활의 지도와 저술에 종사했다.